



# 재능이 '겉기' 인 한 여고생의 이야기

### 심은경 출연 백승화 감독 다큐영화 '겉기왕' 저예산 제작... 주인공의 성장과정 재미있게 풀어내

“기성세대가 원하는 청춘의 성장 조건이란 끝없는 도전과 자기계발, 꿈과 성공을 향해 달리는 것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과연 묵숨 걸고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을까.”

영화 '겉기왕'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반드시 크게 들을 것'(2009)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백승화(35) 감독은 자신의 첫 장편 극영화 연출작 주제를, 또래 감독들이 그러하듯 '청춘'으로 잡았다.

백 감독은 이와 관련, “결승선을 향해 달린다고 하지만 실은 탄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고, 이러한 고민들이 튀지 않는 청춘, 공백의

청춘, 느린 청춘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고 말했다.

백 감독의 말만 들으면 '겉기왕'은 다소 무거운 영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겉기왕'은 '겉기'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재능을 가진 한 여고생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내는 작품이다.

여고생 '민복'은 선천적 말미중후군을 가지고 있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학교를 걸어다니고, 그의 겉기 재능을 알아본 담임 선생님은 민복에게 육상부에 들어가 경보 선수가 될 것을 추천한다. '겉기왕'은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는 민복의 고교생활이 경보를 통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

는 작품이다.

이 저예산 영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역시 심은경의 출연 때문이다. '씨니'(736만명·2011) '광해, 왕이 된 남자'(1232만명·2012) '수상한 그녀'(865만명·2014)에 연달아 출연하며 '최연소 흥행퀀'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영화에 출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다.

심은경(22)은 '겉기왕' 출연에 대해 “'민복' 캐릭터가 중학생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해야겠다 생각했다. 또 '겉기왕'은 따뜻한 청춘 이야기라하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큰 규모의 영화를 택하지 않고 '겉기왕'을 선택한 것과 관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나리오이고, 그 다음이 나와 배역의 공합, 그리고 연기할 때의 재미”라며 “'겉기왕'은 이런 요소들에 가장 부합하는 영화

라고 덧붙였다.

'겉기왕'은 주인공 '민복'을 비롯해 독특하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조연 캐릭터들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다. 육상부 에이스 '수지' 역의 박주희, '한 여름의 판타지아'에서 주목받은 김새벽이 꿈과 열정을 강요하는 담임 선생님을, 최근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독특한 매력을 뽐내는 허정도가 육상부 코치를 연기했다.

이밖에도 'IT 아일랜드'의 멤버 이재진이 민복의 짝사랑 중독집 배달원 '효길'을, 김광규와 김정영이 민복의 부모로 출연한다.

백 감독은 “난 항상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캐스팅이야말로 그렇다. 시나리오 쓸 때 생각했던 캐릭터에 딱 맞는 배우들을 캐스팅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겉기왕'은 다음달 20일 개봉 예정이다. /뉴스



전북현대 선수단,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방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의 이재성, 김형일, 장운호, 황병근 선수가 지난 21일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를 찾아 '전북현대와 함께하는 교내 축구대회'에 참석했다.

상업정보고등학교는 지난 2013년 전북현대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매년 시즌권을 구입하는 등 전북구단의 든든한 후견 학교임을 자처해왔다.

학교를 방문한 선수들은 시합중에 멋진 패스와 화려한 개인기로 학생들의 엄청난 환호성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득점을 성공한 학생들과 재미있는 세레머니를 선보이며 학생들과 하나로 어우러진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성 선수는 “여고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경기장뿐만 아니라 훈련장까지 응원 왔던 학생들을 봐서 좋았다”며 “축구를 함께하며 친해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항상 응원을 보내주는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체육회 회장단, 전국체전훈련 선수단 격려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의 각 종목 회장단이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강화훈련에 여념이 없는 전북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에 나섰다.

전라북도체육회 김광호 부회장과 김택수 부회장, 최찬욱 부회장은 20일 완주지역 전북체고를 찾아 수영·체조·사격·복싱·테니스 등 5개종목의 110명의 선수들을 격려했으며 21일에는 우석대와 한별고 그리고 라온불링장을 찾아 축구·농구·볼링 등 3개종목 90명의 선수들을 격려해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수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 지난 7월 18일부터 47개 종목 1천570명의 전북대표선수를 확정, 강도 높은 하계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2016 전주시 주말리그 생활체육 야구대회

## 성주건설 슬러거 우승

성주건설 슬러거 야구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동호인 야구대회'와 제 20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우승에 이어 2016 전주시 주말리그 동호인 야구대회'까지 정상에 등극하며 명실상부한 생활체육 야구팀의 강자로 군림했다.

야구의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펼쳐지는 전주시 주말리그에 출전한 성주건설 슬러거는 이마트, 상산고, 웨딩팀 등 다양한 동호인 야구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조일현, 김용복, 노하영, 진문기 선수들이 여전한 기량을 선보이며 팀을 우승으로 견인했다.

성주건설 슬러거의 화려한 성공의 원동력에는 김춘길 회장과 이성주 단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임대훈 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회원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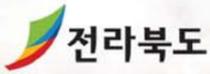
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성주 단장은 “우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춘



길 회장과 항상 따뜻한 리더쉽으로 팀을 이끄는 임대훈 감독님,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회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첫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 도내 최고의 생활체육 야구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다.

우승 차지한 성주건설 슬러거는 최근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이 하나로 접목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의 올바른 활동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계기가 됐다. /김민근 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